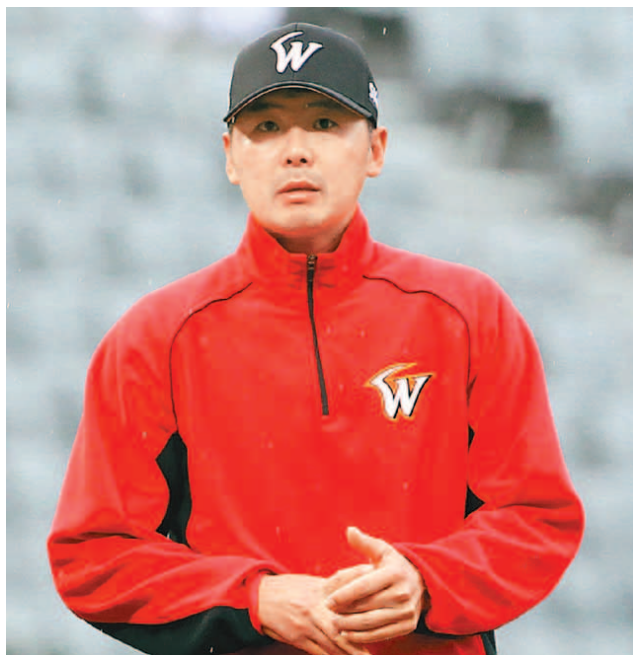




두산 김원형 투수코치, SK 새 감독으로…



김원형 SK 신입 감독은 두산 투수코치로 재직하던 포스트시즌 도중 팀을 옮겼다. 두산의 큰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행보다. 사진제공 | SK 와이번스

두산, 올핸 PS 도중 코치 유출 “어수선한 동행보다 편안한 이별”

-두산 김태룡 단장

두산 정재훈 투수·배영수 불펜코치 체제로 김원형 SK 감독 “배려해준 두산 정말 감사”

두산 베어스는 올해 포스트시즌(PS) 도중 김원형 투수코치를 떠나보내야 했다. 김 코치는 6일 SK 와이번스의 제8대 감독으로 임명됐고, 계약조건은 2년 총액 7억 원(계약금 2억 원·연봉 2억5000만 원)이다.

두산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2017시즌 직후 한용덕 당시 수석코치가 한화 이글스 감독으로 영전했고, 2018년에는 한국시리즈(KS) 준비기간에 이강철 당시 수석코치가 KT 위즈 사령탑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7시즌에는 PS가 모두 끝날 때까지 철저히 게 보안이 유지됐다. 2018시즌에는 준플레이오프(준PO) 기간에 소식이 알려졌지만, 이강철 당시 수석코치는 KS가 끝날 때까지 두산 선수단과 함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김원형 감독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아예 코치진을 개편했다. PO를 앞둔 상황임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파격적 결정이다. 2017시즌과 2018시즌 같은 상황을 경험한 바 있기에 두산은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SK가 김원형 감독의 선임을 공식 발표한 뒤 정재훈 1군 불펜코치는 메인 투수코치로, 배영수 퓨처스(2군) 팀 투수코치는 1군 불펜코치로 자리를 옮겼다. 두산 김태룡 단장은 “두 차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찍 보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의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두산은 2017시즌과 2018시즌 잇달아 KS에 진출했으나,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는 수석코치가 다른 팀 감독으로 부임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김 단장은 “5일 준PO 2차전 직후 소식을 듣고 김태형 감독과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우리는 학습효과가 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함께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원형 감독도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지 않겠나. 갑작스러운 코치진 보직 이동에 따른 부담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원형 감독을 선임한 SK 구단도 “이야기가 새어나가기 전 두산 구단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 우리의 결정을 전달했다”며 “PS 이후 (김원형 감독의 선임)을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두산에서 큰 결단을 내려줬다. 두산에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PS 도중 메인 투수코치가 이탈한 것은 분명 작지 않은 변화다. 두산의 결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원형 감독은 8일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두산 구단에 고마움을 전하며 남은 PS의 선전을 진심으로 바랐다. 김원형 감독은 “배려해주신 두산 구단에 정말 감사드린다. 김태형 감독님께 정말 많이 배웠다. 밖에서 PS를 지켜보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잠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김태진 기자 bong82@donga.com

플레이오프 관전포인트



두산 김태형 감독

두산-KT 2020시즌 성적 비교		
두산	팀	KT
79승4무61패 (승률 0.564)	정규시즌 성적	81승1무62패 (승률 0.566)
23회(2위)	역대 PS 진출 횟수	1회(10위)
4.31(1위)	평균자책점	4.54(4위)
1046개(2위)	탈삼진	848개(10위)
15개(1위)	블론세이브	23개(10위)
109개(1위)	피홈런	118개(9위)
0.792(3위)	OPS(출루율+장타율)	0.794(2위)
1257개(9위)	홈런	163개(2위)
3.82개(9위)	타석당 투구수	3.97개(1위)
0.667(9위)	수비효율(DER)	0.687(2위)
38개(10위)	희생번트	64개(1위)



KT 이강철 감독

두산 ‘가을 DNA’ vs KT ‘디테일 야구’

준PO MVP 오재원 PS만 85경기 PS 경험 많은 두산 승부처서 막강

KT, 수비효율 0.687 짜임새 앞서 불론S 최다…불안한 뒷문은 숙제

많은 듯 다르다. 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시작되는 두산 베어스-KT 위즈의 플레이오프(PO·5전3승제)는 ‘상반의 시리즈’다. 포스트시즌(PS) 경험치의 차이부터 팀 구성이나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까지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다. 요약하자면 KT의 짜임새 있는 디테일과 두산의 파워가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가을 DNA, 두산의 믿을 구석

KT는 창단 첫 포스트시즌(PS) 진출이기 때문에 자체 육성선수들 중 가을무대를 밟아본 이는 없다. 유한준(24경기), 황재균(19경기) 등 전 소속팀에서 PS에 나선 이들이 있지만, 경험이 많진 않다. KT의 PO 엔트리에 포함된 야수들의 PS 출장 경험을 모두 합쳐도 68경기로 두산 오재원(85경기)에 미치지 못한다.

바로 이 가을 경험이 두산의 가장 큰 무기다. LG 트윈스와 준PO에서도 ‘가을 타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승부처에서 스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보이며 LG 마운드를 땀뿜한 것도, 정규시즌 잠잠했던 오재원이 준PO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것도 가을 DNA의 힘이다.

타선의 파괴력에선 어느 한쪽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 두 팀의 색깔은 마운드에서 갈린다. 두산은 팀 평균자책점(ERA) 4.31로 1위, KT는 4.54로 4위다. KT는 특히 리그 최다 블론세이브를 기록한 뒷문에 확실히 상대를 압도할 파워 퍼처가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색안경 벗으면 보이는 KT의 디테일

일반적으로 두산의 야구는 세밀한 디테일로 정의한다. 반대로 KT는 1군 진입 초반부터 어수선한 수비를 보였다. 하지만 올핸만큼은 KT가 디테일에서 앞섰다. 실책 개수만 따지면 두산(85개·2위)이 KT(102개·9위)보다 적지만, 수비효율(DER)은 KT(0.687·2위)가 두산(0.667·9위)보다 높았다. 기본적으로 KT 투수진은 탈삼진보다 맞춰 잡는 유형으로 채

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값인 실책 개수가 많았다. 하지만 땅볼 유도에 능한 소형준,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 등이 호성적을 냈던 것은 탄탄한 내야진이 있기에 가능했다.

경기 운영도 그렇다. KT는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희생번트(64개)를 댄 반면 두산은 최저(38개)였다. 젊은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강철 감독은 적극적 작전으로 이를 상쇄했다. 이 감독이 KT의 PS 경험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마다 “내가 가을야구를 많이 해봤다”는 자신감으로 받아쳤다. 실제로 이 감독은 선수시절은 물론 투수코치, 수석코치 등을 역임하며 가을야구를 술하게 치렀다.

수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역대 최연소 PS 1선발…‘에이스 로드’ 걷는 KT 소형준

(19세 1개월 24일)



최익래 기자의 피에스타

1992년 염종석보다 약 5개월 빨라 두산전 3승1패·ERA 2.51 안정적 플렉센과 대결…썩썩한 투구 기대

19세 1개월 24일. 이제 막 만 19세를 넘어선 옛날 소년이지만 팀의 에이스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KBO리그 39년 역사상 최연소로 포스트시즌(PS) 1선발의 중책을 맡았다. 결과는 예측할 순 없지만 ‘에이스 로드’를 걷고 있음은 분명하다. 소형준(19·KT 위즈)의 2020년은 그 자체로 역사다.

KT는 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릴 두산 베어스와 플레이오프(PO) 1차전 선발투수로 소형준을 낙점했다. 정규시즌 26경기에서 13승6패, 평균자책점(ERA) 3.86으로 호투하며 신인상을 예약해둔 상황이지만, 부담스러운 PS 1선발 자리에 소형준을 투입한 것은 이강철 감독의 과감한 선택이다.

역대 PS 1선발은 대부분 팀의 에이스가 도맡았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강한

선발에 맞서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는 선발을 내세운 뒤 2차전 이후를 기약하는 ‘논개 작전’이 있긴 했다.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에이스를 투입해 PS 진출을 확정 한 뒤 가을야구 첫 무대에서 2~3선발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에이스가 팀의 가을을 열었다.

소형준의 PS 1선발 기용은 KBO리그 최연소 기록이다. 종전은 1992년 9월 25일 염종석(롯데 자이언츠)이 삼성 라이온즈와 준PO 1차전에 선발등판하며 세운 19세 6개월 5일인데, 이를 5개월 가까이 줄였다. ‘괴물’ 류현진(한화 이글스)도 데뷔 첫해인 2006년 18승으로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쥐었지만, 준PO 2차전 선발이였다. 5일 이상 쉰 류현진이 충분히 1차전에 나설 수 있었지만, 당시 김인식 한화 감독은 베테랑 문동환을 택했다. 류현진이 PS 1선발로 나섰던 것은 2007년 삼성과 준PO 1차전으로, 당시 20세 6개월 14일이였다.

이 감독은 소형준에게 ‘빅게임 퍼처’를 기대하고 있다. 팀이 정규시즌 2위를 확정짓기 위해 사투 중이던 10월 29일 대전 한화전에 등판해 6이닝 1실점(비자책)을 기록

했던 모습에 내심 PS 1선발로 짐찍어둔 상태였다. 이 감독은 “스무 살짜리 어린 투수라고 볼 수 없는 투구였다.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도 오히려 평소보다 더 와일드하고 씩씩하게 던졌다”며 다시금 감탄했다. 사실 고졸신인이 개막 로테이션에 진입한 자체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소형준은 시즌 내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강심장을 증명해냈다.

두산은 LG 트윈스와 준PO에서 6이닝 11삼진 무실점 위력투를 뽐냈던 크리스 플렉센을 PO 1차전 선발로 일찌감치 낙점했다. 평균 150km의 속구로 무장한 플렉센은 정규시즌 KT를 상대로도 2경기에서 1승, ERA 0.90으로 ‘극강’이었으니 당연한 선택이다. 버거운 상대지만 소형준이 밀릴 이유는 없다. 소형준도 두산전 6경기에서 3승1패, ERA 2.51로 안정적이었다. 프로 데뷔 첫 선발이 두산전이었고, 그날 승리를 따냈으니 기본 좋은 상대다.

소형준은 지금 한국야구 사상 누구도 걸어본 적 없는 길 위에 당당히 서있다. 결과를 떠나 박수받기에 충분한 2020년을 보낸 소형준에게 당연한 훈장이다.

ing17@donga.com



소형준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투수 비교			
두산 크리스 플렉센	투수	KT 소형준	
21	경기	26	
116.2	이닝	133	
8-4	승-패	13-6	
3.01	ERA	3.86	
1.09	WHIP	1.40	
12	QS	10	
132	탈삼진	92	
6	피홈런	6	
0.226	피안타율	0.274	
(0.260-0.202)	(좌-우타자)	(0.274-0.274)	

※ 플렉센 : KT전 2경기·1승·ERA 0.90(피홈런 0개)
소형준 : 두산전 6경기·3승1패·ERA 2.51(피홈런 0개)
※ ERA : 평균자책점, WHIP : 이닝당 출루율, QS : 퀄리티스타트

가을야구 승리의 열쇠는 ‘선두타자 출루’

폴 인 넘버스

선두타자 출루시 득점확률 53.6% 출루율 두산 0.360 vs KT 0.348

단기전, 포스트시즌(PS)의 열쇠는 무엇일까. 공격으로 범위를 좁히면 결국 선두타자의 출루가 핵심이다. 준플레이오프(준PO)에서 LG 트윈스를 울리고, 두산 베어스를 웃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PO와 한국시리즈(KS)에서도 선두타자 출루는 중요 포인트다.

선두타자가 출루하면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설명 득점에 실패하더라도 상대 투수 입장에서 피로도가 가장

된다. 벤치의 선택폭도 선두타자 출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무사에 주자가 나가면 여러 작전을 기민하게 쓸 수 있다.

KBO 공식기록업체 스포츠투아이에 따르면 올 정규시즌 선두타자 출루 시 절반 이상인 53.6% 이닝에서 득점이 나왔다. 반면 선두타자 출루에 실패했을 경우 해당 이닝 득점은 17.3%까지 떨어졌다. 36.3%의 득점확률 차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포스트시즌(PS)에서도 선두타자 출루의 중요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두산은 준PO 2경기 17차례 공격이닝 중 선두타자 출루는 10번에 달했다. 그 중 7이닝에서 두산 특유의 짜임새 있는 공격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반면 LG는 와일드카드 결정전(WC)부터 준PO까지 31차례 공격이닝 중 6이닝만

선두타자가 살아나갔다. 해당 이닝에 득점을 뽑아낸 것도 3이닝뿐이었다. 이 때문에 LG는 득점 대부분을 홈런에 의존했다.

남은 PS에서도 선두타자가 공격의 열쇠를 쥐는 가능성이 높다. 두산은 정규시즌 선두타자 출루율 0.360(2위), 해당 이닝 득점 비율 58.8%(1위)로 강했다. 큰 무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즐비한 데다 허를 찌르는 작전이 매 경기 나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두산의 선두타자 봉쇄가 KT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반면 KT는 선두타자 출루율 0.348(5위)로 썩 재미를 보진 못했다. 하지만 선두타자가 출루한 이닝의 56.7%(4위)는 득점으로 이어졌다. 재미난 점은 선두타자 출루에 실패한 이닝의 20.5%에 득점을 만들어 내 이 부문 1위에 오른 대목이다. 중장거리 타구를 생산해낼 타자가 많으니 득점 확률은 어느 정도 유지된 것이다.

테이블세터가 관건이다. 두산은 정규시

선두타자 출루 기록			
팀	선두타자 출루율	선두타자 출루시 득점 확률	선두타자 미출루시 득점 확률
키움	0.365	52.7%	16.8%
두산	0.360	58.8%	17.6%
롯데	0.355	49.2%	18.6%
NC	0.349	56.9%	20.1%
KT	0.348	56.7%	20.5%
LG	0.347	57.3%	16.8%
KIA	0.347	52.1%	16.3%
삼성	0.330	55.3%	16.2%
SK	0.300	47.7%	17.3%
한화	0.297	48.1%	12.7%
리그	0.340	53.6%	17.3%

즌 때 그랬듯 준PO에서도 라인업에 변화를 줬다. 리드오프는 허정민과 정수빈이 차례로 맡았다. KT도 황재균, 강백호 등이 전진 배치되는 강한 테이블세터를 구성하고 있다. 누가 먼저, 언제 출루할지에 양 팀의 성패가 달려있다.

수원 | 최익래 기자